

광주에도 장애 어린이 전문치료 시설 들어선다

국·시비 72억 투입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2024년 개원 재활의학과 개설·소아입원 병상 24개... 호남권재활병원 수형

광주에 그토록 기다렸던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오는 2024년 문을 연다. 그동안 1000여명에 이르는 광주의 장애 어린이들은 지역 내 재활의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매월 수백만원 대의 재활치료비까지 감당하며 수도권 등 전국 병원을 떠도는 이른바 '의료 난민'이 돼 고통을 받아왔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 '2021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국·시비 72억원을 들여 2024년 초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애아동과 고위험 아동의 재활치료, 의료서비스는 물론,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 가족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수행기관은 호남권역재활병원으로, 2013년부터 조선대학교가 수탁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에 재활의학과 등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소아입원 병상 24개와 낮 병동 24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복지부 기준을 넘어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급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로봇치료기, 수중치료기 등 최신 의료장비와 수치료실, 로봇치료실 등 장애아동 맞춤형 시설, 장애부모 휴게공간과 병원교실 등 부대시설도 설치될 예정이다.

공공재활의료기관이 설립되면 집중재활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및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지역 내 치료와 퇴원 이후 재활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지고, 생애주기별 정기 평가를 통해 성장에 따른 기능 저하 예방, 조기진단·치료로 2차적 기능손실 및 합병증 예방도 가능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2018년부터 의료센터가 아닌 병원으로 공모를 진행했지만 건립·운영비 부담으로 신청 기관이 없어 수차례 무산됐고, 인력과 건립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

은 센터 건립으로 방향을 전환한 끝에 유치에 성공했다.

광주에서 활동 중인 한 장애어린이 전문 물리치료사는 "매달 수백만에 이르는 치료·거주·교통비 등을 부담하며 수도권 병원을 전전하는 장애 어린이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면서 "특히 장애아동은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고, 성인이 될때까지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장애아동을 돕는 기능 등을 충실히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장은 "이번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지역 내 장애아동의 치료를 돕고, 중증 장애아동(영유아)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해파리 주의단계 민관 대응체계 본격 가동

전남도가 득량만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전남 전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가 지난 23일 발령됨에 따라 해파리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대형종이며 독성이 있어 해수욕장 쓰임사고를 유발한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상대적으로 독성은 약하나, 어망을 훼손하고 어획량을 감소시키는 등 수산피해를 양산한다.

전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름달물해파리와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가 동시 발령됨에 따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을 비롯한 각 시군, 도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민·관 해파리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해파리가 주로 발생하는 여수, 고흥 등 5개 시·군에 해파리 제거비용 4억5000만원을 신속 배정해 해파리 제거장비를 현장에 즉시 투입토록 하는 한편 해파리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최정기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해파리 수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파리 제거작업을 신속히 실시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여수 등 4개 시·군에서 79일에 걸쳐 1129의 해파리를 제거하는 등 총력 대응한 결과 수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해파리로 인한 수산피해가 없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화순 동북천 수해 피해 복구 김영록 지사, 현장 점검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6일 지난해 수해 피해가 발생해 복구공사가 한창인 화순 동북천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재해 우려지역 점검을 강화하고 장마철 범람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동북천은 지난해 8월 400여mm의 집중호우로 제방 12곳, 990m가 붕괴됐다. 전남도는 12억원의 복구예산을 들여 제방 살기 1082m, 홍수방어벽 구축 115m, 바닥보수공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7월 초 준공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바다 살리기' 퍼포먼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5일 고흥군 남열해수욕장에서 열린 '제26회 바다의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고래조형물에 폐품을 채워 작품을 완성시키는 '바다살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년까지 140억 들여 전남도, 중소 조선사 스마트화

전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총 140억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도내 중소조선업의 생산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작업효율이 낮고 환경에도 유해했던 중소 조선사의 기존 선박 건조 장비를 친환경 스마트장비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조선소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군에 속하는 비계 분야 기술을 개발하고 600여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돼 조선소 현장의 사고 방지와 안전 강화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약을 하고, 영암군과 협력해 7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올해는 연말까지 스마트 생산시스템 및 비계 분야 엔지니어 4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득량만 과밀 노후 벗어나 청정어장으로 재생

100억 들여 퇴적물 제거 등 추진

전남 득량만이 해양수산부의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미래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주요 해역인 득량만 외에도 여주만, 가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 등 5개 만에 대해 연차적으로 해수모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환경, 퇴적오염물 등 기초조사를 마무리해 사업 1순위로 선정된 득량만의 2개 해역에 대해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장기 연작, 혼합면허, 과다 밀

집 양식어장에 대해 퇴적 폐기물·폐각 수거, 폐지주(호름) 제거, 모래나 황토 살포, 경운, 바닥 고르기 등 어장 환경 개선과 안정적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개별면허지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개소당 500ha에 달하는 대규모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2025년까지 5년 동안 전국 20개(개소당 50억원, 총 1000억원) 만을 대상으로 청정어장 재생사업 추진을 계획,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기초조사를 마무리한 전남도와 경남도의 4개 해역 2000ha를 선정했다.

전남도의 기초조사는 지난해 5개 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집적쓰레기 현존량(35%) ▲주된 어장재생 수요도(35%) ▲경제적 재생효과(20%) ▲생태적 중요도(10%) 평가에서 득량만이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1순위로 선정돼 해수부 시범사업에 득량만의 2개 해역이 선정됐다.

선정된 득량만의 2개 해역에 대해선 앞으로 상세조사 및 실시계획 수립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패류양식어장 1000ha(500ha/2개소)에 국비와 지방비 100억원을 들여 ▲퇴적오염물 제거 ▲해저토 재생 ▲양식어장 시설·재조정 ▲어장환경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소상공인 돕는 제로페이 전남 행복 쿠폰 발행 이벤트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카드 사용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모바일 지역 상품권인 '전남 행복 쿠폰' 발행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남 행복 쿠폰'은 제로페이를 운영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전남도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벤트 기간은 28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전남 지역 오프라인 제로페이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 이용이 편리하고, 쿠폰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전남 행복 쿠폰은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등 3종류로 발행한다. 구입 시 10% 할인해준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비례제로페이와 올원뱅크, 광주은행개인뱅킹, 티머니페이, 페이코 등 19개 제로페이 결제 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카드사용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현금이거나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제로페이 쿠폰(QR) 코드로 결제할 수 있다.

전남지역 제로페이 가맹점은 지난 5월 말 기준 3만1550개소로, 제로페이로 결제된 금액만 총 150억원에 달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자산 2,000억 달성 기념 경품 대 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입구)